

■ (추경) 2026년 시각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심의 총평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6년 시각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추가공모 사업
- 회의일시 : 2026년 6월 2일(화), 12:30 ~ 17: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남인숙, 변종필, 윤동희, 이윤희, 이준

2026년도 문예진흥기금 추가공모 <시각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사업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시각예술 분야 플랫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7.5억 원을 편성하여 공간 운영 주체 활동의 위축 및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연내 수행되는 공간 운영 프로젝트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심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담심의제 적용 사업입니다.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추경사업의 긴급성을 고려하고, 심의 절차와 방법, 공공 기금 사업의 취지와 중대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수행했습니다. 올해 신청 접수한 총 48건 가운데 심의 대상은 45건이었으며, 사전 전수검토 및 온라인 채점을 통해 최종 1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심의는 주어진 공모 사업의 평가지표에 따라 사전 전수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신청주체의 사업수행역량(3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50%), 사업계획의 공공성(20%) 기준에 근거하여, 각 항목의 세부 지표에 따라 1년 이상의 운영 성과, 지원 신청한 기획 내용 등을 엄밀하게 평가하고, 평가에 부합하는 정도에 맞게 점수로 환산했습니다. 심의 위원 5명이 동일한 서류를 각자 평가한 이후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거쳐 15건의 선정과 함께 선정자의 사업 이행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하여 차순위 예비 후보 1, 2위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의는 무엇보다 창작주체의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창작주체의 구성인원(상근 등)이 안정적인지, 전문적인지를 검토하였고, 공간이 지향하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지, 중추적인 플랫폼으로서 생태계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고 있는지, 그 기획의 역량과 확산의 노력을 검토했습니다.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예산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통해 사업의 구체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창작주체는 무엇보다 동시대 변화된 창작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주체의 심화나 확산의 방법을 모색하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제안된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비판적인 주제로부터 고도의 미술 언어의 탐색에 이르기까지 관점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성에 주목하면서 결국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동시대 새로운 감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가치의 공유와 확산의 방법’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모든 공간이 해당 지역을 기반한 거점 공간으로 예술 향유 계층의 참여와 더불어, 미술계에 기여하는

담론의 확산과 심화 등 기존 진행해 오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전적으로 창의적인 수준의 공유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쉬운 점은 제안서에 담긴 언어의 무게 때문에 결과를 상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동시대 주제를 언급하려다 보니, 제안 내용이 다름에도 활용하는 용어가 비슷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획의 결과가 감각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명료하게 그려지도록, 언어를 구사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지원한 창작주체 모두 시각예술의 플랫폼으로서 진지한 고민을 이어가며 예술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창작의 생태를 구성하는 주요 자원들이면서도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창작주체들께 위로와 지지를 표명하며 엄정한 심사와 치열한 논의를 거친 만큼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

2026년 전담심의위원 일동